

사료곡물 가격의 장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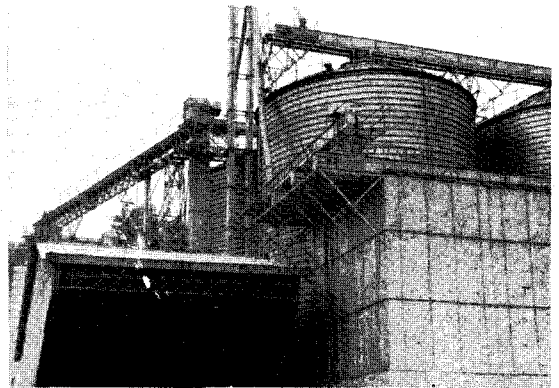
김 주 형

제일제당(주) 곡물부장

우리나라의 사료곡물 도입량은 해를 거듭하면서 국민소득 향상에 힘입은 축산물 소비 증가와 비례하여 늘어 왔다. 1980년도에는 188만톤 그리고 1983년 도에는 크게 증가한 400만톤의 사료곡물이 수입되었고 금년의 경우 430만톤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사료곡물로는 옥수수 소맥 수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곡물의 세계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연이은 풍작에 대한 기대와, 한편 예기치 못한 이상기온으로 인한 흉작에 대한 우려가 교차되어 대체적으로 큰폭의 등락없이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옥수수의 경우 7월 이후 풍작에 대한 확신과 특히, 수확기중 일시적이었지만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한 바 있다.

금년초 톤당 \$120(C&F기준)선의 미국산 옥수수 가격이 9월 중에는 \$80까지 잠시 하락했다가 11월 중에는 반등하여 \$90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태국산 옥수수는 동가선에 거래되고 있으나 중공산 옥수수는 \$95선을 상회하고 그나마 생산량 감소로 수출물량 부족으로 최근에는 거의 거래가 중단된 상태이다. 사료용 소맥 역시 주생산국인 캐나다, 호주, 유럽의 지속적인 생산량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옥수수 가격보다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어 1984년 이후 실시한 옥수수 사용비율에 개선노력을 정착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외화절감과 사료가격 안정에 기여하였다. 지난 7월 중에는 옥수수가격 급락으로 상대적으로 사료용 소맥이 고가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옥수수 가격의 회복 및



소맥 가격의 반락으로 톤당 \$10 가격차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소맥의 사용을 선호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사료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안정적으로 저가구매를 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한 일이나 낮은 곡물가격으로 미국의 농민들은 지금 「풍요속의 빈곤」을 겪고 있으며 생산비 보장이 되도록 가격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미농무성이 발표한 11월 1일 현재 옥수수 수확 예상 면적은 6,895만 에이커로 에이커당 수확량을 119.3 Bushel로 기준할 때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백만톤 감소한 54.7백만톤에 이를 것이라 한다.

그러나 미국내의 수요감소(2.6%)로 재고량은 늘어 기록적 수준인 142백만톤이 되고 이는 약10개월 소요량에 해당된다.

미국산 곡물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는 수요공급의 원칙외 농민 보호를 위한 미국의 농업정책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고 그동안 실제로 큰 효과를 보아왔다.

그러나 정부의 재원 부족으로 농민에 대한 지원 규모를 축소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지난 10월 24일 미농무성은 이를 반영한 '87농업정책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미의회 선거에서 이것이 쟁점의 하나로 대두되어 곡창지역인 중서부지역의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정책 비난에 편승한 이탈로 민주당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에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농업정책의 전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옥수수를 중심으로 한 신농업법(NEW FARM BILL)의 골자를 살펴보기로 하자.

'87년도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목표가격(Target Price)는 Bushel당 U\$3.03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으나 융자기준율(Loan Rate)은 Bushel당 U\$0.1 하락한 U\$1.82로 확정되었고 20%의 휴경(Acreage Reduction)외에 15% 추가 휴경에 대해 농민이 선택권을 갖게되고 이경우 추가 휴경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보상을 지급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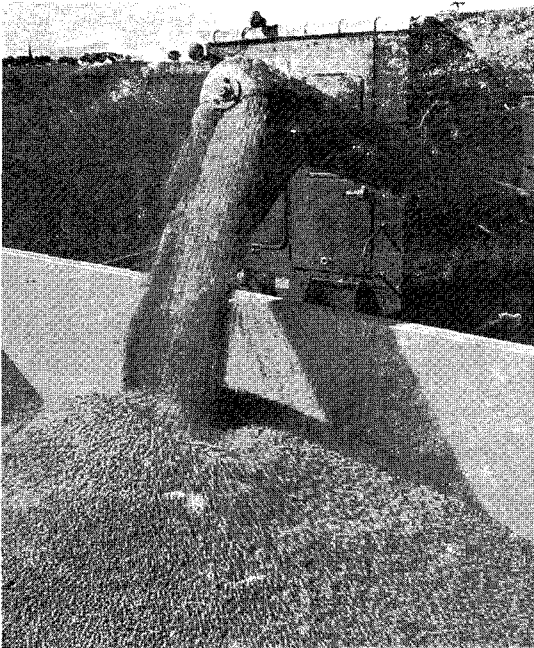
○ 경작지 감축계획(Acreage Reduction Program : ARP)

기본적으로 론·프로그램(Loan Program)

〈표 1〉 미국의 옥수수 수급현황

(단위 : 백만톤)

구 분		년 도		
		86/87	85/86	증감율(%)
공급	기초재고	102.6	41.9	
	생 산	208.9	225.2	△7.8
	소 계	311.5	267.1	16.6
수요	수 출	135.9	133.0	3.0
	국내소비	33.0	31.5	4.8
	소 계	168.9	164.5	2.7
기 발 재 고		142.6	102.6	3.9



에 참가하려는 농민은 경작면적의 20%를 감소시켜야 하고 이경우 감소면적 20%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이것을 Non Paid Diversion이라 한다. 이에 참가한 농민은 추가로 15% 경작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Paid Diversion이라 한다. 따라서 '87년도 Farm Bill하에서는 최고 35%까지 경작면적 감소가 가능하다.

○ 휴경 보상(Paid Diversion)의 지급방법

추가 감소시킨 경작면적(15%)에 해당하는 생산량에 대하여 Bushel당 U\$2을 보상받았는데 그 지급방법은 보상금액중 50%를 선지급하고 잔액은 '87년도 수확이 끝난 5개월 후에 지급받게 된다.

○ 결손 보상(Dificiency Payment)

론· 프로그램에 참가한 농민은 Target price와 Loan Rate 또는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87년도 지급 상한선은 Bushel당 U\$1.21이된다. 이는 대상 경작면적의 생산량을 기준하여 지급되는데 이때 생산량은 농무성에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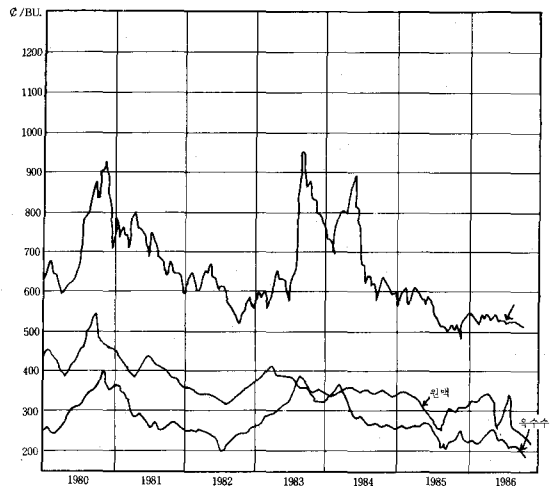
해 지역별로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총지급액중 40%는 프로그램 참가 시점에서 선지급받고 나머지는 수확후 5개월이 지난뒤 받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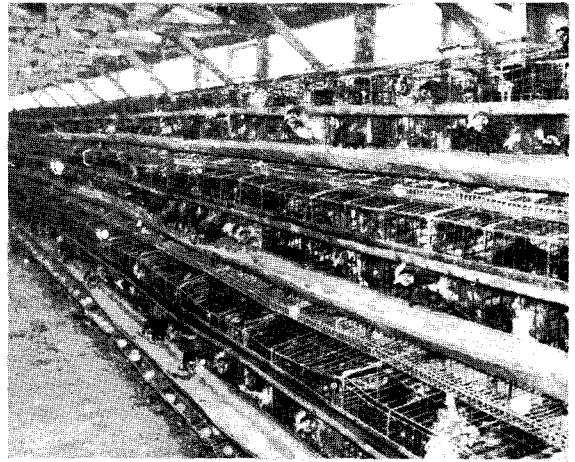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신농업법하에 농민들의 적극적인 휴경제획 참가로 전년보다15%의 추가 휴경이 발생하여도 작황이 순조롭게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되지 않는한 현 재고를 감안하면 공급측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공은 금년도 동북 일부지방의 흉수 피해도 불구하고 작년수준 64백만톤을 상회하는 70백만톤을 생산했으며 지속적인 생산 증가를 위하여 5년간 상당액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 한다. 작년에는 중공산 옥수수 수출량이 4.5백만톤이었으나 국내 사료수요의 증가로 수출여력이 크게 감소하였고 오히려 내년중 5백만톤의 미산 옥수수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며 90년말까지는 약5천만톤 규모의 옥수수를 수입 충당해야하는 입장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태국의 옥수수 생산 경우는 '85년 옥수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식부면적 감소외에 5월 중순 이후 혹심한 가뭄으로 주요 옥수수 생산 지역의 피해가 커 작년대비 20% 감소한 4백만톤 정도(수출가능량 2백만톤) 예상된다.

곡물가격 추이도 (시카고 곡물거래소)





FAO(유엔 식량 농업기구)와 미농무성은 '87년 신곡 출하기까지 세계 곡물 시장은 공급 과잉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부분 곡물 거래 전문가 역시 '87년도 기후 변화에 따른 작황의 불확실성을 제외하고는 현수준(옥수수 C&F U\$90-100/MT)에서 수요증가로 인한 미등의 가능성도 있으나 기본적 가격 변동 추이는 단기적으로는 약보합세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커피원두 가격의 폭등, 그리고 원유 및 대두가격의 완만한 상승세와 관련하여 지난 수년간 계속된 Down Trend Market은 끝나고 세계 경제 회복 조짐에 따른 새로운 수입 수요 증가의 가속화로 제 3의 원자재 SHOCK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일부에서는 타진해 본다.

내년에도 상당량의 사료곡물을 수입해야하는 우리로서는 매우 어렵게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겠다. 중공과 태국은 수출여력이 감소한 반면 미국의 농민들은 현재 낮은 옥수수 가격으로 신농업법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여 경작면적이 인위적으로 다소 줄 것이다. 아직 재고를 고려하면 여하한 경우에도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나 한편으로는 '83년도 경우 PIK프로그램으로 휴경지가 크게 늘은

데 반해 예기치 못한 7월과 8월 중의 가뭄과 폭서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되어 가격이 폭등한 바 있는데 내년 역시 식부 이후의 기상변화가 가격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분석될 수 있다. 당시 PIK프로그램만으로도 어느정도 가격 상승이 불가피했는데 거기에 극심한 흉작까지 겹쳐 C&F\$170까지 치솟아 이후 미국산 옥수수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우리가 미국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중공, 알젠티, 태국 등으로 다변화의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PIK프로그램은 농민이 자기 농지의 일부를 유희화하면 그 유희지에서 생산될 수 있는 곡물의 일정 비율을 현물로 보상해주는 생산 제한 정책으로 옥수수와 소맥에만 적용되었다.

또 다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미국의 무역 수지개선 및 재정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미달러화는 계속적으로 약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국제 경제의 회복과 함께 새로운 곡물 수요를 유발하여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소폭강세로의 전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관계자들은 「미국의 흉작으로 재고가 증가하였지만 농민들이 팔려고 하지 않는한 현가격 수준에서 더욱 떨어질 공산은 적다」고 전망하고 있다. ♣